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나다”(설교요약)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 연못 주위에는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곳에는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 한 마디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그곳에 있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신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1.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자신이 머물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한다. 38년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들어가 있었다. 이름 그대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은 것이다. 베데스다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임 없이 부어지고 있다. 이곳에 몸을 담기만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 머물 수 있는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하고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저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 받고, 치유 받고, 회복되는 곳이다.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

2.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다 (6절). 이것은 그에게 간절함과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함이었다. 내 안에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절박함과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부어주신다. **(빌2:13)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38년 된 병자는 인내할 줄 알았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참았다. 절망하지 않고 수십년 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

3.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8-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일어날 때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평생을 앓은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라”는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어려운 말씀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저 순종의 첫발을 내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나다” (요5:1-9)

1. 마음 열기 - 10년 후 우리교회의 모습을 상상(소원)해 보세요.
2. 경배와 찬양 -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는(95장)

1227 여호와 이레

— 창22:14 • 사6:24 • 홍정표 曲 —



2. 주님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x2) 여호와 살롬
3. 주님 내게 승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x2) 여호와 낫시

3. 말씀 나누기

- (1) 한 주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삶을 함께 나누십시오.
 일상의 삶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세요.
- (2)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새롭게 깨달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3) 우리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교회생활을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4. 사역나누기

- (1)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목장과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 (2) 오늘 나눔 가운데 특별히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합시다.